

가구구성의 유형에 따른 차별출산력: 중국 연변자치주의 조선족과 한족의 비교분석*

권 혁 인**

이 논문은 중국의 가족적 특성과 출산력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사회문화적 특성을 근간으로 하는 가구유형을 분류, 이들간의 출산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90년에 실시된 제4차 중국인구센서스 자료 중에서 조선족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길림성내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50%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가구구성의 특성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 가족경제의 생산단위와 세대구성을 기준으로 고립형, 병렬형, 직계형, 전통형의 네가지 가구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한족과 조선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농가와 비농가의 가구형태 또는 세대구성의 성격이 출산수준과 갖는 상관관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국의 사회 경제적 요인과 결부하여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가족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민족별 출산수준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연구결과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해체하고 집단적 공동생산 체제를 대체시키려는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가족중심의 생산체제와 전통적 가족주의를 변화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구유형에 따른 출산수준의 편차는 두 민족간에 차이를 보여 주었다. 한족이 여성의 직업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의 편차가 크게 변화되는 것과는 달리 조선족은 비교적 전통적인 세대관이 강조되는 다가구 유형에서 높은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국의 인구정책과 경제개방 시행 과정에서 약소민족인 조선족의 저출산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한족에 비해 적었던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핵심단어 : 가구유형, 세대간 유대, 노동력 재생산, 차별출산력, 전통적 가족규범

* 이 논문을 위해 자료의 사용은 물론 지도와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신 김두섭 교수님과 세심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한양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I. 머리말

가족의 유형과 규범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체적으로 대가족가치가 지배적인 사회일수록 높은 출산력을 보여주는 반면, 가족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크지 않은 산업사회에서는 가족크기와 출산력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가족내 권위구조 및 자녀관계도 산업화 이전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가정내에서 여성의 권위가 신장되어감에 따라 출산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비교적 유연해졌을 뿐만아니라, 양육부담 및 교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자녀가치 역시 점차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경향은 전통적인 부계 친족관계를 약화시킴으로써, 가족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켜왔다. '한 지붕 아래에서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집단'이라는 의미의 가구(household) 개념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박혜경, 1999). 이는 가족의 가치 및 규범을 포괄하는 가족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세대간 유대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핵가족화의 사회적 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어 안정기에 이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가구개념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도시의 핵가족 유형과 전통적인 대가족 유형 사이에는 유대감의 차이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출산력 수준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주의 이행 초기부터 반가족적 이념체계를 세우기위해 가족에 대한 통제 및 변혁작업을 수행해 왔던 중국의 경우는 전통적 가족의 개념과 기능은 물론 가구유형의 성격에 있어서 독특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던 출산 및 육아, 노동력 재생산 기능을 유보하거나 탈가족화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자 했다(Chang, 1990). 이 과정에서 가족의 고유한 재생산 기능은 물론 전통적인 가족유형이 중국 사회주의의 특성에 맞게 재조직되었다. 특히 '한 자녀정책(One-child Policy)'으로 대표되는 산아제한과 소수민족에 대한 상대적 출산우대라는 상이한 인구정책의 시행은 개혁개방기의 중국 경제정책과 맞물려 민족별, 도농간 가족구조에 영향을 미쳐왔다(Ahn, 1992). 따라서 민족별, 지역특성별 가구의 인구변화와 출산패턴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인구와 가족에 대한 비교적 세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가족경제의 특성에 따라 농가가구와 비농가가구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의 경제수단이 행정구역상의 지역구분에 비해 가구유형에 보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출산력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사회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인민공사제도(commune)가 실시된 이후 중국의 농가는 새로운 경제제도의 도입과 함께 시행된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재생산이라는 가족의 경제적 기능 확대와 상충되는 결과를 맞게된다(한남제, 1997). 이에 따라 경제적 생산단위로서 가족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노동력 공급의 차원에서 강조되던 출산욕구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준다(Caldwell, 1982). 그러나 중국은 가족해체를 위해 실시된 집단농장화의 영향력이 가부장적 가족구조 내지는 전통적인 가족의 경제적 기능을 축소할만큼 강하게 작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가치는 전통적으로 유지되고 출산력 또한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에 비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비농가에서는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함께 나타난 인구정책의 영향이 출산욕구의 하향 추세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가족구성의 변화로 인한 가구규모축소와 여성의 가족내 지위변화가 출산행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개의 비농가에서는 경제개방의 영향으로 경제행위가 개인의 직업과 공적영역에 이전됨으로써 가족의 기능이 분화 혹은 축소되는 형태를 보여준다. 이는 중국이 점진적인 경제개방을 통한 사회주의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관계적 요소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까닭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가족내 세대간 통제력은 약화되고, 출산과 가족규모 역시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출산력이 감소되는 일반적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위에서 제시한 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우선 농가와 비농가의 가구유형별 출산력의 편차를 알아보고, 이에 관련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인구정책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전통적 가족주의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민족별 출산수준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비교적 산업화의 영향을 적지않게 경험한 연변조선족의 사례와 한족에 대한 비교 검토는 차별적인 민족간 인구정책과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세대구성과 가구특성이라는 두가지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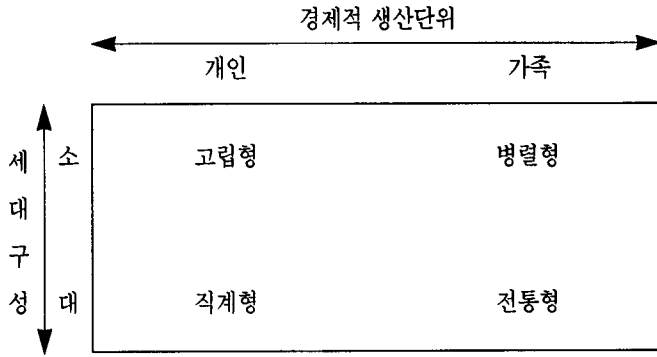
수를 이용해 가구유형의 모델을 구성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가구구성의 유형과 그에 따른 차별출산력은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가 가족의 주요기능인 출산행위와 어느정도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경제개방과 같이 경직된 사회주의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중국의 상황에서 그것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가구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출산력 패턴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출산력을 보이고 있는 조선족의 인구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90년에 실시된 제4차 중국인구센서스 자료 중에서 길림성내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50%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Ⅱ. 가구구성의 유형과 출산력

이 글에서는 중국내 연변자치주의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가구구성의 특성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중국의 가족제도와 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여 두가지 차원(dimension)으로 나누어 범주화한 것이다. 하나는 사회주의적 인구정책의 시행과 경제개혁의 영향에 따른 농가와 비농가에서의 출산력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경제적 생산단위를 기초로 하여 구분하였다. 농가에서는 출산을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전통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비해, 비농가의 경우 산업화에 따른 직업개념이 보다 강조되어 출산을 노동력의 차원에서 보다는 비용과 연계시키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전통주의적 가족관에 따른 세대간 유대의 관계적 특성을 세대구성의 형태로 구분하였다. 이는 세대구성에 따른 출산통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범주를 구성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경제적 생산단위는 농가유형과 비농가유형의 특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결국 가족의 경제기반이 토지 혹은 개인의 직업 중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가는 출산에 대한 가치와 행위에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는 특히 노동력 및 출산동기에 대한 통제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규모와 출산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세대구성은 중국의 유교적 전통문화의 영향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비록 사회주의 정책이 유교적 잔재를 많이 약화시켰다고는 하지만,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은



(그림1) 가구구성의 유형

여전히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가계유지 또는 부모부양 및 조상숭배를 강조하던 가족의 역할은 가부장적 위계구조와 세대간 유대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출산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인데, 자녀에 대한 출산통제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던가 남아선호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회적 풍토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증명해준다. 따라서 다세대가구일수록 대가족가치와 높은 출산력을 보이는 것은 여전히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세대구성이 비교적 핵가족화된 가구유형의 경우 출산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보다 유동적이며, 부부관계 및 자녀에 대한 가치도 변모된 형태를 보여주게 된다. 특히 가임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은 이러한 차이의 정도를 심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1)은 이 두 가지 개념을 기준으로 가구구성의 유형을 나누어 재구성한 자료이다. 먼저 고립형은 비농가 핵가족가구의 유형이다. 흔히 미혼자녀를 포함한 2세대 비농가 가구로서 소가족가치와 개인가치가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경제기반이 토지에서 개인의 직업으로 전이되면서 부모세대의 통제력과 유대감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가족내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면서 출산에 대한 여성의 통제가 가능해진 경우이다. 그 결과 산아정책에 대한 가족중심적 저항요건이 비교적 적어 저출산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병렬형은 중국의 농가정책의 부침(浮沈)과 인구통제책이라는 사회적요인 결부된 핵가족형태이다. 가족개혁사업으로 인해 전통적 세대관계는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농가의 특성상 출산행위를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려는 경향이 강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농가는 생산단위가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가족규모와 출산을 통한 노동력확보는 생산확대와 농가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중심으로 생산단위를 재조직하여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해체하려는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은 애초부터 반발과 마찰의 가능성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병렬형은 바로 이런 상황 하에서 발생한 독특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가구구성은 2세대 중심의 핵가족형태이지만, 가족농업의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농가유형이다. 구성원들의 도덕적 기반이자 경제적 생산단위로서 가족의 중요성이 부활됨에 따라 가족 노동력 공급을 위한 출산욕구가 커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직계형은 경제적 기반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형태로서 가족의 노동력 재생산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3세대 이상의 동거로 세대간 유대가 비교적 강하게 유지되는 유형이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에서 가족기생(family parasitism)과 같이 핵가족 이외의 친족을 포함한 가구형태가 나타나는 등 확대직계 가족의 유형이 나타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유형은 개인의 직업이 경제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의 출산 통제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여준다. 물론 가구유형이 다세대 동거의 형태를 띠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부장권의 유지와 그에 따른 출산가치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지만, 여성의 직업과 교육수준은 출산태도 및 행위를 비교적 완화시키는 경향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전통형은 흔히 가부장적 확대가족의 유형에서 볼 수 있듯이 세대간 유대가 강조되고 출산도 노동력 재생산 혹은 전통적 가족관의 측면에서 이해되는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집약적 농업을 경제기반으로 삼고 있던 전통사회의 사회적 조건과 유사한 농가의 경우에서 잘 나타난다. 가족이 경제생활의 한 단위로서 인정됨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확보는 곧 노동력의 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자녀의 출산은 많을수록 바람직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결혼의 목적을 가계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자녀출산에 두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가족관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결부되어 나타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가구구성의 네가지 유형은 중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토대로 구성된 분석적 도구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은 각각의 출산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논리적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각의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의 편차와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세분화

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자료처리 및 변수구성

이 글에서는 1990년 중국인구센서스 자료 중에서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50% 표본 자료를 활용하였다.¹⁾ 이 자료들은 가구유형별 출산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몇단계의 처리과정을 거쳐 통계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졌다.

먼저 가구수준에서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개인수준의 자료를 가구수준의 데이터로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표본자료에서 총1,024,111명에 해당하는 개인수준자료는 기관 및 소수민족으로 기록된 케이스들을 제외한 가구수준의 자료(273,392가구)로 구성되어졌다. 또한 비교적 동질적인 가구에서의 출산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49세 미만의 유배우부인 가구(173,637가구)를 대상으로 사례를 제한하였다.

다음으로 가구구성의 유형을 변수화하기 위한 몇단계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우선 가구구성의 유형은 세대간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세대구성을, 그리고 경제적 생산단위에 따른 출산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가구형태라는 두가지 변수를 범주화시켜 재구성하였다. 세대구성은 크게 출산경험이 있는 부부가구를 포함하여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와 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 동거형 그리고 가구의 손자동거형 등 3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가구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가구형태는 가구의 직업 및 거주지역의 성격에 따라 농가와 비농가로 분류하였다. 이밖에도 여성의 사회참여와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살펴보기 위해 유배우부인의 직업과 학력을 이용하였다. 직업은 농업활동, 비농업활동,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였으며, 학력은 교육년수와 졸업여부 등을 중심으로 네단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한편 종속변수인 출산력은 유배우부인의 총출생아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특성들과 출산력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과 중분류분석(MCA)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중분류분석은

1) 이 자료는 김두섭과 Barbara A. Anderson이 한국학술진흥재단과 NICHD, Mellon Foundation의 지원으로 1996년 발표한 "한국인과 중국조선족의 출산력 및 남아선호관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센서스자료를 저자들의 승인 하에 사용한 것이다.

명목변수 이상의 모든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을 가진다. 무엇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 전과 통제한 후로 나누어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정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 유용하다.

Ⅳ. 연변자치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구구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연변자치주는 중국내 조선족이 가장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1990년 현재 5개의 시(市)와 3개의 현(縣)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인구는 약 208만명으로 그 중에 조선족은 39.5%인 82.1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중국내 조선족인구의 약 42.8%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구성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의 인구변화 추이는 인구정책 및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정성호, 1994). 중국의 전체 인구변화와 마찬가지로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경우도 자연재해와 대약진운동의 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60년대 초반까지는 출산력 감소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66년 문화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중국의 전체 출산력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조선족은 출산력이 저하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²⁾ 게다가 1970년대 중반이후 중국정부의 다양한 인구역제 정책은 조선족의 출산수준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배경이 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수민족의 인구증가율이 한족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인구는 같은 기간동안 다른 소수민족의 인구증가율에 비해 낮은 출산력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사회적으로 소수민족이 갖는 제약과 산아제한 정책의 적극

2) 1962년부터 1972년에 이르는 기간에 중국의 조출생율은 34‰를 유지했다. 이 11년간을 중국의 제2차 베이비 붐으로 보고 있다. 반면 1986년이후 점차적 출생율 상승시기를 제3차 베이비 붐으로 분류하고 있다(尹豪, 1993).

〈표 1〉 연변조선족자치주 유배우부인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구성비율

	민 족		전 체
	조 선 족	한 족	
어머니 연령			
20세미만	0.1	0.5	0.3
20-29세	29.4	35.1	32.6
30-39세	45.7	41.0	43.0
40-49세	24.8	23.4	24.0
어머니교육			
문맹 및 반문맹	0.3	11.4	6.6
초등학교	9.1	25.7	18.5
중등학교	47.5	34.4	40.1
고등학교이상	43.1	28.5	34.9
어머니직업			
농업	39.2	33.7	36.1
비농업	47.4	45.5	46.3
비경제활동	13.5	20.8	17.6
거주지			
농촌	12.2	9.1	10.4
도시	87.8	90.9	89.6

자료 : 1990 인구센서스 연변조선족자치주 50%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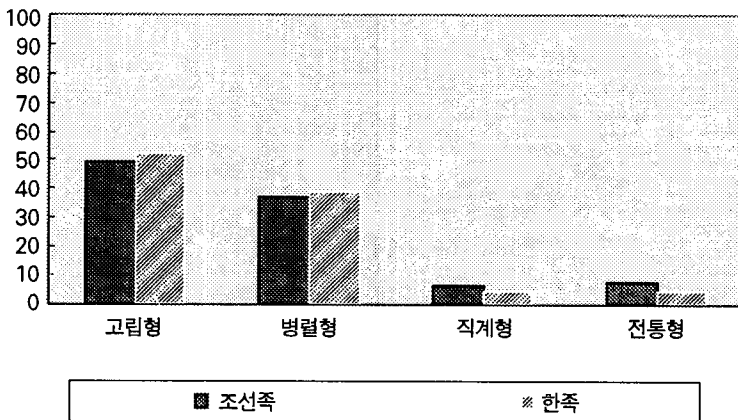
적 수용이 비교적 낮은 출산수준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과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조선족 인구가 중국내 다른 지방이나 한국으로 이동해가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선족의 저출산력은 이 지역에서의 인구구성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두섭, 1996).

연변자치주 50% 표본자료는 조선족 41.9만명을 포함하여 102.4만명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출산행위와 관련하여 동질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 중에서도 유배우부인가구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이는 가구구성의 유형에 따른 민족별 출산력 차이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해 줄 수 있다. 우선 출산과 관련하여 가구내 세대별 구성원들의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출산의 통제 가능성을 가족의 위계구조라는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배우부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해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표 1〉은 연변자치주에 거주하는 15-49세 유배우부인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구성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제시된 어머니의 연령구조를 보면, 조선족은 30세미만 유배우부인가구의 구성비율이 한족에 비해 낮게 나타나있다. 반면 30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율은 오히려 조선족이 높은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조선족의 출산력 저하 추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두섭, 1996).

조선족 여성의 교육수준은 한족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내 조선족의 교육수준이 다른 민족에 비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족의 경우 문맹 및 반문맹의 여성인구가 0.3%로서 상당히 낮은 구성비율을 보여주는 반면, 중등(47.5%) 및 고등교육이상(43.1%)의 교육을 받은 인구는 한족의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있다. 또한 직업 및 거주지의 특성을 보면 조선족 여성의 농촌 거주비율 및 경제활동 종사인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종별로는 비농업부문이 농업부문 종사인구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편차의 폭은 크지 않지만 대체로 조선족 여성이 한족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 가구유형별 구성비율

2) 가구구성

가구구성의 유형은 전반적으로 고립형과 병렬형의 2세대 가구형태가 직계형이나 전통형의 3세대이상 가구형태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는 가구유형별 구성비율을 막대그래프로 표시해 놓은 것인데, 전체적으로 고립형, 병렬형, 전통형, 직계형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족별로 나누어 보면 한족은 고립형과 병렬형의 구성비율이 조선족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있는 반면, 조선족은 직계형과 전통형의 구성비율이 한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가구구성의 유형을 세대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미자녀 부부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는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2세대 가구는 전체 가구의 83.0%를 유지하고 있어 부부가족 중심의 가구형태가 일반적 유형임을 보여준다. 다세대 가구유형인 3세대이상 가구는 11.2%로 2세대 가구에 비해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민족별로는 조선족이 한족에 비해 3세대가구의 구성비율이 높은 반면, 2세대 가구에서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구유형별로 살펴볼때 고립형과 병렬형이 한족은 각각 52.0%, 39.0%로 조선족의 49.1%, 36.8%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선족은 직계형과 전통형에서 각각 6.4%, 7.7%로 한족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족의 세대 분가(分家)비율이 조선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세대구성에 따른 유배우부인가구의 민족별 구성비율

		민 족		전 체
		조 선 족	한 족	
세대구성	1세대	6.0	5.6	5.8
	2세대	79.9	85.4	83.0
	3세대	14.1	9.0	11.2
가구유형	고립형	49.1	52.0	50.8
	병렬형	36.8	39.0	38.0
	직계형	6.4	4.4	5.3
	전통형	7.7	4.6	6.0

자료 : 1990 인구센서스 연변조선족자치주 50% 표본자료.

V. 가구구성의 유형에 따른 차별출산력: 민족간 비교

이 연구에서는 가구유형에 따른 출산력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배우부인의 총출생아수를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표 3>을 보면, 민족별 평균출생아수는 한족과 조선족이 각각 1.96과 1.72로 한족이 조선족에 비해 많다. 이를 가구유형별로 세분화하면 두 민족 모두 고립형, 직계형, 병렬형, 전통형의 순으로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족은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의 편차가 조선족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조선족의 출산수준이 한족에 비해 낮기 때문에 가구유형별 출생아수의 평균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유형에 따른 차별출산력에서 특이한 것은 직계형 보다 병렬형에서 더 높은 평균출생아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전체 직계형이 1.96이고 병렬형은 2.15로, 소가구 농가형태라 할 수 있는 병렬형이 다세대 비농가가구인 직계형에 비해 오히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병렬형이 핵가족형태를 띠고 있지만, 다산을 선호하는 농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계형은 소득활동과 생계활동이 분리됨에 따라 자녀출산이 노동력 내지는 소득의 측면이 아니라 비용의 차원에서 고려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산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 욕구와 가정내 역할 또한 변화하여 출산욕구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통적으로 며느리의 출산을 강하게 통제하려는 부모세대의 경향과 같이 가계유지를 위해 여성의 역할을 상당부분 제약했던 중국의 사회문화적 전통과는 상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구규모에 있어서는 직계형이 병렬형에 비해 대가족형태를 유지한다. (그림 3)은 가구유형에 따른 유배우부인의 총출생아수와 유배우부인가구의 평균가구원수를 민족별로 나타낸 것이다. 출생아수의 경우와는 달리 평균가구원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직계형이 병렬형 보다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계형의 경우 친족을 포함한 가구형태나 경제기반이 없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비농가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반면 직계형은 전통형에 비해 가구규모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가라는 경제구조의 특성상 전통형이 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비농가에 비해 근접성이 크기 때문에 친족간 유대감도 비교적 강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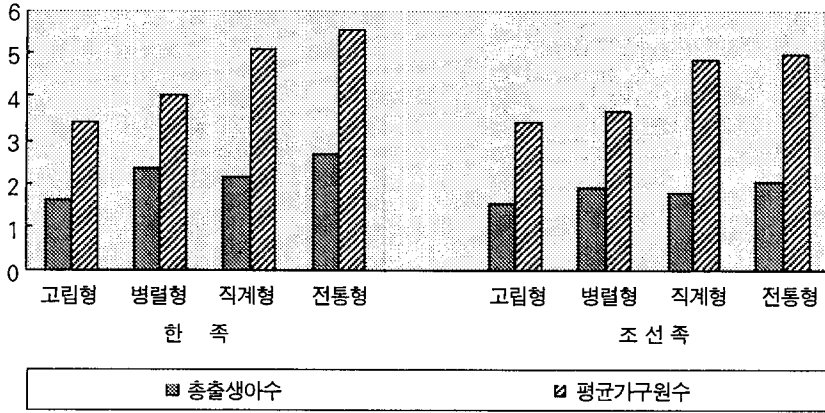
<표 3>에서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을 보면, 모든 가구유형에서 어머니 직업이 비농업부문인 경우에 총출생아수(1.45)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

〈표 3〉 가구유형에 따른 연변조선족자치주 유배우부인의 총출생아수

	가 구 유 형				전 체
	고 립 형	병 렬 형	직 계 형	전 통 형	
민족					
한족	1.61	2.34	2.14	2.65	1.96
조선	1.54	1.89	1.79	2.01	1.72
거주지					
농촌	1.90	2.24	2.20	2.25	2.20
도시	1.57	2.12	1.96	2.30	1.82
어머니 직업					
농업	1.90	2.18	2.11	2.26	2.18
비농업	1.39	1.70	1.70	1.98	1.45
비경제활동	2.22	2.26	2.72	2.86	2.28
거주지이동					
이동	1.37	1.72	1.63	1.71	1.56
미이동	1.60	2.19	1.98	2.33	1.88
어머니 교육수준					
문맹 및 반문맹	3.55	3.09	3.80	3.43	3.22
초등학교	2.77	2.54	3.12	2.75	2.63
중등학교	1.67	1.80	2.02	1.95	1.76
고등학교이상	1.23	1.55	1.48	1.70	1.31
어머니연령					
20세미만	0.44	0.65	0.50	0.63	0.59
20~29세	0.90	1.26	0.94	1.24	1.06
30~39세	1.47	2.20	1.64	2.18	1.79
40~49세	2.79	3.39	2.96	3.49	3.08

자료 : 1990 인구센서스 연변조선족자치주 50%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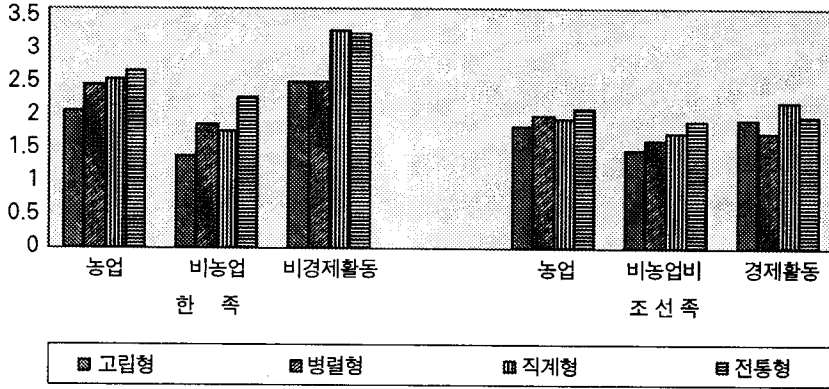
다. 이와는 달리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일 때 출산력이 2.28로 가장 높았다.



(그림 3) 가구유형별 총출생아수 및 평균가구원수

이를 가구유형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비경제활동일 때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활동의 경우 고립형, 직계형, 병렬형, 전통형의 순으로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반면, 비경제활동에서는 고립형, 병렬형, 직계형, 전통형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머니가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가구유형에서 병렬형(2.18)이 직계형(2.11)에 비해 출산수준이 높다는 것은 노동력 확보와 같은 농가의 전통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 직계형(2.72)이 병렬형(2.26)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비경제활동으로 인해 여성의 가구내 지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세대간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율적인 출산통제의 가능성이 그만큼 축소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직업이 비농업부문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출산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가구유형별로 볼때에도 병렬형과 직계형 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립형에 있어서는 1.39로 상당히 낮은 출산수준을 보여준다.

(그림 4)는 직업에 따른 가구유형의 유배우부인 출산수준을 민족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어머니가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경우를 보면, 한족은 직계형이 병렬형에 비해 높은 출산수준을 보이는 반면 조선족은 병렬형이 직계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농업활동을 하는 경우 병렬형이 직계형 보다 높은 출산력을 보여주는데 반해, 한족은 오히려 직계형이 병렬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 조선족과 대조를 보인다.



(그림 4) 어머니 직업에 따른 민족별 가구유형의 총출생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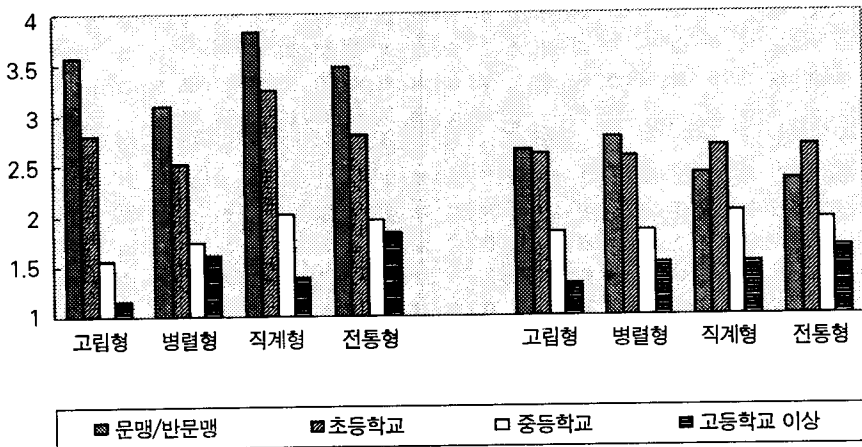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비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유형에서도 한족의 경우 병렬형이 직계형 보다 높은 출산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선족의 유형과는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두 민족간 가구구조의 유형별 출산수준 차이에 어머니의 직업활동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조선족은 노동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농가유형인 병렬형의 출산이 높아지는데 반해 한족은 다세대 비농가가구인 직계형의 가구에서 높은 출산수준을 보여준다. 반대로 비농업에 종사하는 조선족 유배우부인가구에서 세대구성의 영향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는 달리 한족의 경우는 농가의 노동력확보가 출산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반면 어머니가 비경제활동인 경우에는 두 민족 모두 고립형과 직계형의 비농가가구가 비교적 높은 출산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에만 전념하게 됨에 따라 출산에 대한 자의적 욕구 혹은 타의적 압력이 그 만큼 강하게 작용한 까닭이라 판단된다.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오던 가족의 가치규범 및 세대간 유대에 대한 요구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가구유형별 총출생아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상승할수록 출산력이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구유형별로는 고립형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라 급격한 하향추세를 보이는데 비해 병렬형과 전통형은 교육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출산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계형은 고등학교

교 이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총출생아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가구유형에서는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농가적 출산기능이 비교적 약한 고립형과 직계형의 출산수준이 높게 나타나 있다. 반면에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이 두 유형의 평균출생아 수는 매우 낮아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민족별 차이를 (그림5)에서 도표화하여 제시해 보았다. 한족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에서 고립형과 직계형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출산력이 높으며, 학력이 상승할수록 병렬형과 전통형의 출산수준이 높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반면 조선족의 경우 문맹 및 반문맹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계형과 전통형이 고립형과 병렬형에 비해 높은 출산력을 보이고 있다. 한족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저학력일수록 부부중심의 2세대 가구에서 출산수준이 높은 것과는 달리 조선족의 경우에는 3세대 중심의 직계형과 전통형의 출산수준이 교육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교육수준에 따른 민족별 가구유형의 총출생아수

이 밖에도 <표 3>에서는 어머니 연령, 가구의 거주지 이동경험, 그리고 현재 거주지역에 따른 출산력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40세미만의 전연령층에서 병렬형의 출산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대간 영향력이 강조되는 가구유형의 특성 보다는 농가적 출산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주지 이동은 최근 5년동안 거주지의 이동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항목인데, 거주지를 이동한 경험이 있는 가구일수록 출산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가구유형별로는 이동경험이 있는 경우 병렬형의 출산력이 전통형에 비해 높은 반면, 이동하지 않은 가구에 있어서는 전통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표 3>에 제시된 특성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중분류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4>는 연변자치주에 거주하는 한족의 유배우부인가구에서 개인적 수준과 가구수준의 특정요인들이 총출생아수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를 분석해 놓은 것이다. 실제 분석에는 3개의 독립변수와 2개의 공변량을 가지고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표 4>의 결과는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로 총출생아수의 분산을 63% 설명 또는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족 유배우부인 가구의 경우 총출생아수는 가구유형에 따라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은 미세한 차이로 가구유형에 비해 작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어머니 직업과 가구유형은 다른 독립변수들과 공변량의 효과조정후 영향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0.01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들 독립변수들은 각각 다른 독립변수의 효과를 조정한 이후에도 총출생아수에 대한 편차의 폭이 변화했다는 사실 이외에 특별히 새로운 편차의 양상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반면에 <표 5>는 <표 4>에서 관찰된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민족별로 재확인하고자, 동일한 분석틀을 조선족 유배우부인의 총출생아수에 적용하여 분산분석과 중분류분석을 제시한 결과이다. <표 5>에서 제시된 변수들간의 관계 양상은 한족의 출산력 분석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단지 한족의 경우 가구유형이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던 반면, 조선족의 경우는 어머니의 직업이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eta 값을 보게되면, 어머니 직업이 0.10으로 가구유형의 0.08보다 오히려 크게 나타났다.

〈표 4〉 한족 유배우 부인의 총출생아수에 대한 중분류분석

총평균 = 1.96 독립변수와 범주	사 례 수	미 조 정		독립변수 · 공변량*의 효과조정후	
		편 차	<i>Eta</i>	편 차	<i>Beta</i>
거주지			0.12		0.03**
농촌	8,853	0.50		0.11	
도시	88,662	-0.05		-0.01	
어머니 직업			0.39		0.13**
농업	32,943	0.42		0.13	
비농업	44,341	-0.55		-0.18	
비경제활동	20,241	0.53		0.20	
가구유형			0.29		0.14**
병렬형	38,042	0.37		0.19	
전통형	4,479	0.69		0.30	
고립형	50,711	-0.36		-0.16	
직계형	4,283	0.18		-0.05	
중다결정계수 R^2					0.63

자료 : * 공변량(covariate) : 어머니 연령 ($p < 0.01$), 어머니 교육수준 ($p < 0.01$)

** $p < 0.01$.

〈표 5〉 조선족 유배우부인의 총출생아수에 대한 중분류분석

총평균 = 1.72 독립변수와 범주	사 례 수	미 조 정		독립변수 · 공변량*의 효과조정후	
		편 차	<i>Eta</i>	편 차	<i>Beta</i>
거주지			0.09		0.03**
농촌	9,205	0.22		0.08	
도시	66,263	-0.03		-0.01	
어머니 직업			0.24		0.10**
농업	29,617	0.23		0.10	
비농업	35,695	-0.23		-0.09	
비경제활동	10,156	0.14		0.04	
가구유형			0.20		0.08**
병렬형	27,778	0.17		0.07	
전통형	5,839	0.29		0.12	
고립형	37,028	-0.18		-0.07	
직계형	4,823	0.06		-0.01	
중다결정계수 R^2					0.56

자료 : * 공변량(covariate) : 어머니 연령 ($p < 0.01$), 어머니 교육수준 ($p < 0.01$)

** $p < 0.01$.

주 : 1990 인구센서스 연변자치주 50% 표본자료.

한족과 비교해 볼 때, 가구유형의 편차는 크지 않은 편이며,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의 총출생아수 편차 역시 한족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선족 유배우부인의 총출생아수 평균값이 1.72명으로 한족의 1.96명 보다 작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다음의 몇가지 사실들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연변자치주의 유배우부인 출산수준에 가구유형은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또한 민족간에 있어서는 한족의 경우 유배우부인의 출산력에 미치는 가구유형의 영향력이 조선족에 비해 크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족의 가구유형에서 조선족의 경우에 비해 출산에 관련된 가족정책 및 인구정책에 보다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그리고 조선족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가구유형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오히려 한족에 비해 세대구성에 따른 출산력차이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유배우부인의 교육수준이나 경제활동참여가 한족보다 높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은 세대구성의 영향이 출산력 차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가족제도나 규범이 사회경제적 요인의 간접적 효과에 의해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한족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VI. 맺는말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으로서 가족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세부적 유형분류에 의해 출산력수준의 차이를 제시한 자료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중국의 가족적 특성과 출산력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사회문화적 특성을 근간으로 하는 가구유형을 분류, 이들간의 출산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90년에 실시된 제4차 중국인구센서스 자료 중에서 조선족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길림성내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50%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는 가구구성의 특성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는 중국의 가족제도와 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여 두가지 차원(dimension)으로 나누어 가구개념을 범주화한 것이다. 가족경제의 생산단위와 세대구성을 기준으로 고립형, 병렬형, 직계형, 전통형의 네가지 가구유형을 분류하여 각각

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민족간 차별출산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경제적 생산단위는 중국의 사회주의적 인구정책의 시행과 경제개혁의 영향에 따른 농가와 비농가에서의 출산력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고, 세대구성의 특성은 전통주의적 가족관의 변화와 세대관계에 따른 출산통제의 차이를 중심으로 범주를 구분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각각의 가구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첫째, 농가와 비농가의 가구형태 또는 세대구성의 성격이 출산수준과 어느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중국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부하여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가족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민족별 출산수준을 검토해 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구성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연변자치주 유배우부인의 출산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출산과 관련하여 가구의 이념형적 개념구분을 노동력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세대간 통제가능성이라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유형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고립형, 직계형, 병렬형, 전통형의 순으로 출산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개방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가적 특성이 여전히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임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해체하고 집단적 공동생산체제를 대체시키려는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가족중심의 생산체제와 전통적 가족주의를 변화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대구성에 따른 출산수준의 차이는 어머니의 직업과 교육수준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나타냈다. 여성이 전업주부로서 비경제활동 상태이며 교육수준도 낮은 경우에 세대간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가구유형에서 높은 출산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여성의 가구내 지위에 따라 자율적 출산통제의 가능성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가구유형에 따른 출산수준의 차이는 두 민족간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족이 여성의 직업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의 편차가 크게 변화되는 것과는 달리 조선족은 비교적 전통적인 세대관이 강한 다가구 유형에서 높은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국의 인구정책과 경제개혁 시행과정에서 약소민족인 조선족이 저출산력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한족에 비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인구정책의 시행과 개혁개방의 변화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인식과 형태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출산관은 대내외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앞으로 변모되어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기능과 기대요구치는 그 전개속도에 비례하여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 가족내에서도 여성의 직업활동과 교육수준의 향상과 같은 환경변화는 기존의 가족내 권위구조에 영향을 미칠만큼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타율적 출산통제와 같은 전통적 풍토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뚜렷한 저출산력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족의 경우 중국문화에의 동화 경향과 최근의 경제개방 흐름에 접하여 민족 고유의 문화와 가족에 대한 전통의식을 유지하기가 보다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파급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태환·김두섭(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두섭(1996), "중국 조선족의 저출산력:한족과의 비교," 《한국인구학》19(1):45-72.
- 안병철(1997), 《사회변동과 가족》, 미래인력연구센터.
- 尹豪(1993), "中國朝鮮族의 人口動向," 《한국인구학》16(1):19-36.
- 이박혜경(1999),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결혼과 가족," 《새여성학강의》, 동녘.
- 장경섭(1994), "사회주의와 가족," 《현대가족과 사회》, 한국가족학회편, 교육과학사.
- 정성호(1994), "中國의 人口增加 推移와 都市化 科程," 《한국인구학회지》, 제17권 2호.
- 한남제(1997),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일지사.
- 한상복·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 출판부.
- Chang, Kyung-Sub(1990), "Social Welfare Crisis and the Family in Decollectivized Rural China,"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3, No.2.
- (1992),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in China : A Korean Perspective,"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15, No.1992.
- Caldwell, John C.(1982), *Theory of Fertility Decline*, London : Academic.
- Barbara A. Anderson, Doo-Sub Kim, John H. Romani(1997), "Health Personnel, Son Preference and Infant Mortality in China," *Population Studies Center Research Reports*, University of Michigan.
- Doo-Sub Kim & Barbara A. Anderson(ed.)(1997), *Population Process and Dynamics: For Koreans in Korea and China*, Hanyang University Press.
- Hsiao-Tung Fei(1947), *Peasant Life in China*, London :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LTD.
- Nam-Kee Ahn(1992), "Effects of the One-Child Policy on the Second and the Third birth in Three Provinces in China,"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15, No.2.
- Zhong-Rong Liu(1985), Changes in Peasant Families of China, in K. Aoi et al., *Family and Community Changes in a East Asia*, Japan Sociological Society.

abstract

Household Type and Fertility Differentials in China: Koreans and Hans Compared

Hyok-In Kw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ertility differentials by household type in China. From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formation and fertility in the process of the reforms an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Attention is given to the distinctive demographic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s and Hans in China. Four types of household according to two dimensions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reproduction are constructed in this paper. The research is based on the raw data files of the 1990 Chinese Population Census from Yanbian Korean Prefecture in Jilin Province.

The results of ANOVA and MCA suggest that household type has an effect on the level of fertility among Hans and Koreans in China. This appears to be particularly true for Hans. For Koreans, soci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mother a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in predicting the attitudes related to family and fertility. Th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 that the effect of household type on fertility is dependent on the level of solidarity and reproductive labor-force demanded by the family. Presence of grandparents and traditional rural residence intensify the positive impact of household type on fertility. This implies that the effects of household type are conditioned by its specific cultural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Despite the recent transformation in China, it is found that traditional elements of family and fertility still exist as norms and institutionalized values among Koreans and Hans.

Key Words : household typ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reproductive laborforce, fertility differentials, traditional family norm